

이상돈의 '바른 소리'



김상곤 혁신위의 '공천 개혁'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공천 혁신을 중심으로 한 1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의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혁신을 먼저 두고 공천 문제를 먼저 제기한 셈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공천 때 문만은 아니며, 공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문제는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총선이 앞으로 9개월이나 남았는데 공천 제도를 두고 당이 백가쟁명을 벌이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문제도 있다.

기복이 많았던 근래의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공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공천은 요즘 들어서 더욱 중요하게 됐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대 정당으로 고착돼서 제3당이냐 신당이 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세금으로 정당 운영을 보조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양대 정당이 상당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상향식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 선

출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에 관해서는 운영의 여지가 많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단위는 작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작은 단위에선 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조직력과 돈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우세지역에선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 규칙을 다시 짜야 할 형편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막말 등 해당행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교체지수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당규에 규정하고, 그 위원 중 다수를 외부위원으로 하며 당과 국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컷 오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위원회의 공천개혁안은 필자가 참여했던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거나 채택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당

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참고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지수는 유권자를 상대로 당 지지도와 현역의원 지지도를 물어서 그 격차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평가방식, 그리고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에게 물어 보는 절대적 평가방식이 있다. 상대적 평가방식은 우세지구 현역의원에게 불리하고 절대적 평가방식은 경합지구 현역의원에게 불리하다.

김상곤 위원회는 당 지지도와 현역의원 지지도를 물어서 그 격차가 큰 의원부터 컷 오프를 하는 상대적 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호남의 현역의원이 컷 오프에 걸려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교체지수를 개발해서 현역의원을 컷 오프한다는 발상은 해당 의원의 경선 참여를 아예 봉쇄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의 본질과 배치된다고 하겠다.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절대평가 여론조사를 해서 하위 25%를 컷 오프한 바 있다. 시간과 예산상 제약으로 단 1회의 여론조사로 컷 오프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두고 말이

있었다. 커트라인 근처에 걸려서 희비가 엇갈린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절대평가로 한 덕분에 경북·대구 지역에서는 탈락자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민심이 나뒀던 부산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왔다. 컷 오프에서 살아난 현역의원을 전라공천이란 이름으로 다시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분열되지 않고 2012년 총선을 치를 수 있었는데, 친이 세력이 국정운영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을 뿐더러 당 전체에 박근혜 위원장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의 패권이 구세력에서 신세력으로 혁명항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는 것이다. 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의 새누리당과 많이 다르다.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지만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굳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을 필요가 있는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공천 혁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삶의 매듭을 잘 풀고 계신가요?



김영철 광주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존경 없이 알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배풀어지듯이 누구도 예외없이 사랑하려 애씁니다.

질문5. "신부님은 마음에 품고 있는, 풀어야 할 매듭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했던 사람들,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모른 척했던 사람들, 도움을 원했지만 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 애쓰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외면했던 아픈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아파 매듭을 풀면서 또 매듭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불안정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온 배경에는, 신부는 누구 미워하거나 마음에 풀어야 할 매듭이 없는, 그리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 충만한 신부라 여기는 사람까지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즐겁고 좋습니다. 물론 지나침은 금물이지만요.

기고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자



이동범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전 광주교총회장

받아왔으나 그 수난 속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경제발전 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우국충정은 물론 은근과 끈기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에 버티던 애국지사들과 선열들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자기들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법안을 통과시켜 전쟁준비를 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와 사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필요한 것이다. 한일 역사 논쟁을 다시 생각하여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한일 양국문제의 최소화에 공동 관리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광복 70년에 패전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고 우리 외교의 앞날은 점점 더 험난해져가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노력할 때 우리 민족이 900여회의 외부침략을

질문6.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나쁘게도 좋게도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7. "우리 사회와 국가가 풀어야 할 매듭은 무엇일까요?"

어느 설문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격정)가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돈, 건강, 자식 순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나만, 우리만,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좀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남의 고통과 상관없이 나와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지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에는 남에 대한 배려나 사랑,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면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간도 인간답지 않게 되고 사회도 국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 이웃에

대한 관심, 배려, 사랑, 책임감을 살리는 것이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자주 '항해하는 배'에 비유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너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바다에서 저녁 바다로, 삶이라는 아침의 나라에서 죽음이라는 저녁의 나라로, 시간의 바다에서 영원의 바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한 물결이 이는가 하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오랫동안 고요를 만끽하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물결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지만 갑작스런 시련에 부딪쳐 환란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함께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부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로서 인간적인 낙담으로 인한 매듭들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돌린 소중한 가치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매듭을 풀어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기쁨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풀리지 않는 매듭을 있습니다. 맺고 푸는 것만 잘 해도 인생의 절반의 성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세상의 매듭을 잘 풀고 계신가요?

社說

메르스 피해 지역 농산물 구매에 동참을

엇그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행사 이름은 '보성 회천감자 직거래 장터'. 보성군 회천면의 특산물인 '회천감자'가 국회 본청 바로 앞마당에 등장한 배경이다. 행사는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보성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메르스 피해 지역의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통해 식여버린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차원이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지역인 보성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회천감자 10kg들이 500장자가 판매됐다.

이후부 보성 군수는 "메르스 여파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보성뿐만 아니라 순창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메르스까지 겹쳐 농촌 지역엔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

황에서 농산물 판매 급감만은 막아내는 데 우리 모두 협조함이 마땅하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극심한 가뭄까지 겪는 농촌지역은 지금 엄청난 데 닳긴 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메르스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남도가 또 소풍물인 '남도 장터'를 활용, 다음달 6일까지 우수 특산품을 시중보다 8~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블루베리 사주기에 나서는 한편 감자를 공동구매하기도 했다.

메르스는 앞으로도 지루한 국적이 예상된다. 메르스 피해 지역 특산물 사주기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에 부합된다. 또한 시름에 잠긴 농촌 지역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이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으로 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광주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 전국 꼴찌라니

광주 지역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최근 경찰 단속 한 달 동안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된 운전자 1만 명에 달했다. 안전띠 착용률도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경찰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시내에서 적발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8731명이었다. 하루 평균 346명이 적발된 셈이다. 이달 말까지라면 1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광주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였다. 경찰청이 내놓은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도 15위로 나타난 바 있다.

광주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불명예스러운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착용률이

무려 98%에 달할 정도인데 비해 한국 평균은 73%, 그리고 광주는 이보다 훨씬 낮다. 더욱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안전띠 착용을 포함한 기초질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음에도 적발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이나 공공의식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의미다.

누가 뭐라 해도 운전의 기본은 안전띠 착용이다. 안전띠는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했을 때에 비해 4.2배, 중·경상통은 18배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유발된 참사를 우리는 많은 교통사고에서 목도하고 있다.

꼭꼭한 교통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띠만 착용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사소한 방법은 안전띠 착용을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착용률이

無等鼓

제미난 나무 이름이 많다. 열매를 빨아 물에 풀면 고기가 떼로 죽는다는 '때죽나무', 수북하게 담은 하얀 쌀밥을 연상시키는 '이팝나무', 생강 냄새를 풍기는 '생강나무', 물을 푸르게 하는 '물푸레나무', 화살 날게 모양을 한 '화살나무', 나무 타는 소리에서 따온 '자작나무'... 아마도 옛사람들은 나무의 생김새와 습성을 오랫동안 관찰해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보리수'는 새콤한 맛의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어릴 적 따먹던 열매는 콩알만 했으나 요즘 개량종 열매는 오디만 하다. 박교수는 같은 책에서 "지금의 보리도 추정되는 '보리'란 지역에 많이 자라라고 보리수 나무란 이름을 얻은 이 나무는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수(甫里樹)"라고 주장한다.

포리동 나무

보리수(普提樹)는 어떻게? 보리는 산스크리트어 '보디(Bodhi=깨달음을 주다)'를 음역(音譯)한 것으로, 우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나무가 연상된다. 장생 백양사 등 국내 사찰 여러 곳에 심어진 '보리수'나 동네 아산에서 따먹던 '보리수'와도 이름이 똑같이 혼란을 준다. 이에 대해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저서 '궁궐의 우리 나무'에서 명료하게 정리해 준다. 석가모니 보리수는 아열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될 때 함께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진짜 보리수'를 대신해 잎 등이 비슷 한 피나무 종류를 심었다는 설명이다.

보리수는 점잖은 이름 대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전라도에서는 '포리스크리트어 '보디(Bodhi=깨달음을 주다)'를 음역(音譯)한 것으로, 우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나무가 연상된다. 장생 백양사 등 국내 사찰 여러 곳에 심어진 '보리수'나 동네 아산에서 따먹던 '보리수'와도 이름이 똑같이 혼란을 준다. 이에 대해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저서 '궁궐의 우리 나무'에서 명료하게 정리해 준다. 석가모니 보리수는 아열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될 때 함께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진짜 보리수'를 대신해 잎 등이 비슷 한 피나무 종류를 심었다는 설명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칭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